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광주 23/28℃ 목포 23/26℃ 여수 24/27℃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2년 (음력 5월 2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kwangju.co.kr 제18424호 1판 2009년 7월 21일 화요일

노사 상생 위기의 지역경제 살린다

1 파업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

연이은 '파업 자충수' 勞도 使도 공멸한다

70여년만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까스로 추락을 모면한 광주 경제가 다시 벼랑에 섰다.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지역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전면 파업을 선언하면서다. 올 초 주요 건설사들의 연쇄부도와 구조조정 등으로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회생 기미를 보인지 한 달여 만에 맞는 핵폭탄급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노사 상생'이라는 취지에서 파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등을 시리즈로 짚어 본다.

경제회생 분위기 찬물 끼얹지 말아야

금호타이어 노조는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노조도 이날 오후 11차 본 교섭이 결렬되자 21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 23일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이번 주에 48시간 동안 공장을 멈추겠다고 벼르고 있다.

파업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적자가 나는 등 무작정 임금만 올리다가는 큰 일 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임금 7.48%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이 노조 요구 사항이다. 사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제조원가 상승 때문에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돼 상반기에 1천4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임금동결 등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706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기아차 노사의 핵심쟁점은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완전 월급제 도입이다. 노조는 사측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지난 2005년 약속했으니까 지키라는 입장이고, 회사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동차 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서 있는 만큼 도입 시기를 늦추자고 설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의 파업이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광주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 초 전년 대비 -36%까지 격감했던 광주지역 산업 생산지수는 지난 5월 2.8%로 올라 10개월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38억1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1억 9천만달러가 감소했다. 고무 타이어가 전년보다 -33.2%, 자동차 -16.1% 등 타이어와 자동차 부문 수출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아와 금호타이어의 위상은 막중하다. 기아차 5조1천억원, 금호타이어 2조4천억원 등 두 기업의 한해 총생산액은 광주 제조업 전체의 30%를 웃돈다. 고용 인력도 기아차 6천700여명, 금호타이어 2천930여명 등 1만여명에 달한다. 협력업체까지 2만여명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13%규모다. 이들 기업이 잘못되면 지역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금은 노사가 싸울 때가 아니다"며 "먼저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에 성과를 나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의 '태권 외국인'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세계 13개국 200여명의 태권도 동호인이 20일 조선대 체육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2009 국제 태권도아카데미에 참가해 태권도 기본 동작을 배우고 있다. 8일간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여수·구례 화엄사·5·18 국립묘지 방문 등 문화체험 시간도 갖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20㎜

광주·전남 또 폭우

2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100㎜가 넘는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고 20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80㎜.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 또한 장마전선과 저기압이 맞물리면서 1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또 천문조 현상에 의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해안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

나주 혁신도시 환경·의료·교육·교통에 중점

살고싶은 '빛가람' 만든다

나주에 건설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시는 자연과 첨단과학 문명이 어우러진 주거여건과 함께, 필요한 도시기능을 스스로 갖추는 자족형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0일,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자족기능 강화, 산학연 유치 및 클러스터 구축, 광역경제권 내 거점도시 육성 등 4대 발전방안을 확정, 정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또 혁신도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진입로 건설 및 학교부지 매입, 에너지타운 조성 등에 필요한 3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정주 여건 개선 분야의 경우 중앙호수공원 주변 거점관광단지 조성, 자원 순환형 에너지타운 조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 전액 국비지원, 대학병원 유치 등 의료·복지시설 확충, U-City 공공디자인 등 선진기법 도입, 실개울 물순환망 구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족기능 강화 분야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확대, 클러스터 용지 4개 지구 특화발전, 진입도로 등 국고지원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방안 등이 포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및 구축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조성, 녹색전력IT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농생명 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정보통신, 문화예술 연관산업 육성 등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내 거점도시 발전전략에는 인근도시와의 상호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혁신도시와 나주구도심, 광주권과의 연계 강화가 포함돼 있다.

지원단은 또 혁신도시 조성원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건설과 하수처리시설 마련, 하천 정비, 학교부지매입, 에너지타운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천5백억 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특히 혁신도시 LED조명 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클러스터용지 4개 지구 특화발전, 자율형 사립고인 한전고 설립 지원, 교육·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 청사 확보 곤란기관 국가지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전남 '물폭탄' 피해 260억원

7~8일과 15~16일 두차례에 걸쳐 전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260억원을 넘어섰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15~16일에 내린 2차 집중호우로 인해 광양과 구례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으며 95억4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8개 시·군에서 주택 140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농경지 4천261ha가 물에 잠겼으며, 축사 3동이 피해를 당해 오리와 닭 등 3만8천마리가 폐사됐다. 또 도로와 교량 48곳과 하천둑 137곳이 유실, 훼손되거나 무너지는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컸다.

한편 7일 내린 비로 인한 1차 피해는 사망 2명에 재산피해액은 16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중앙조사반의 복구비용 조사결과 517억원이 산정돼 24일 이를 확정·심의할 예정이다.

1,2차 집중호우 피해액은 모두 264억여원에 이른다. /최권일기자 cki@